

'82년생 김지영' 주연 정유미

“젠더갈등? NO! 휴식 같은 영화죠”



영화 '82년생 김지영'

“악플, 연예인이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퍼”

목이 늘어진 티셔츠, 후줄근한 트레이닝복, 뒤로 대충 묶은 머리. 열심히 아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해 질 녘 창밖을 보면 왠지 모를 공허함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지영을 보고 누군가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혹은 미래의 자신을 투영할지 모른다. 엄마, 자매, 친구들이 떠올라 가슴 한켠이 저릿해질 수도 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 (김도영 감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담는다. 영화의 울림이 큰 것은 현실에 발을 내딛던 이야기 자체의 힘도 있지만, 배우 정유미(36)의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현실 연기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16일 한 카페에서 만난 정유미는 “그동안 단독 주연인 영화는 부담스러워 주인공 공이 ‘때’로 나오는 작품들을 주로 선택했는데, 이 영화는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제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또 배우로서도 ‘왜 재가 주인공을 해?’라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 된 것 같았죠.”

정유미와 김지영은 비슷한 연배지만, 출산과 육아, 회사 생활 등은 정유미가 모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다. 그는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처럼 보여주는 게 제일 어렵다”면서 “시나리오가 탄탄했지만 제가 표현하기 어려운 장면은 원작 소설의 해당 단락을 찾아보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찬히 읽어봤다”고 떠올렸다.

정유미는 “완성된 영화를 보면서 엄마,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며 “가슴이 몽글거리는 느낌이 들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무심해서인지, 이 영화를 엄마와 함께 볼 용기가 나지는 않네요.”

그는 영화 속 공감했던 장면으로 지영에게 사람들이 ‘맘충’이라고 욕하자 ‘저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세요’라고 반박하는 대목을 꼽았다.

정유미는 사실 이 영화 출연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SNS 등에서 온갖 악플에 시달렸다. 원작이 페미니즘 소설로 여겨지는 까닭에 남성 중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정유미는 악플에 대해 “너무 황당하고 놀랍다”면서 “연예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퍼서 오히려 웃음이 난다”고 했다.

원작 소설과 영화를 둘러싼 ‘젠더 이슈’에 대한 말을 아꼈다. “그 정도로 이슈가 될 줄은 예상도 못 했어요. 너무 논란이 커지니까 오히려 현실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이 영화로 (젠더) 갈등이 커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소설도, 영화도 갈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정유미는 그러면서 “이 영화는 나와 내 주변을 둘러보며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작품”이라며 “관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영화”라고 강조했다.

정유미는 ‘도가니’ ‘부산행’에 이어 이번 작품에서 공유와 세 번째로 호흡을 맞췄다. “서로 성격도 알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작품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동료가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송승헌의 정치코미극 ‘위대한 쇼’ 3.2% 종영



배우 송승헌을 내세워 정치판을 코믹하게 그려낸 tvN 월화극 ‘위대한 쇼’가 막을 내렸다.

1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 방송한 이 드라마 마지막 회 시청률은 평균 3.2%, 순간 최고 3.9%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최종회에서는 위대한(송승헌 분)이 가슴으로 넣은 딸 한다정(노정의)과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키고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 총선 포기까지 결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위대한 쇼’는 정치라는 테마를 코미디

와 가족극이라는 장르로 풀어낸 신선함을 안겼다. 주변에서 비일비재한 임대아파트, 맘카페, 육아, 대안가족, 유튜브 방송 등 에피소드로 시의성도 확보했다.

쌍인 연기 경력만큼 오히려 힘을 뺀 송승헌의 연기 스타일도 이번에 작품과 맞아떨어져 호평받았다.

그러나 중간 부분 답보한 전개와 종합 장르의 매력에 살리지 못한 연출이 많은 시청자의 눈을 붙드는 데는 실패했다.

전날 KBS 2TV ‘조선로코-녹두전’은 5.0%~6.6%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김예림 아닌 ‘림킴’, 첫 미니앨범 발매

‘제너레이션’ 공개

흔성듀오 ‘투개월’로 유명했던 가수 김예림이 림킴(Lim Kim·사진)으로 이름을 바꾼 뒤 첫 미니앨범을 발표한다.

유니버설뮤직은 림킴이 지난 15일 ‘제너레이션’(GENERASIAN)을 공개했다.

여성과 동양을 주제로 한 이번 앨범에 수록된 여섯 곡 모두 림킴이 작사·작곡했다.

앨범 제작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되기도 했다. 약 2000 명의 후원으로 9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해 ‘제너레이션’이 탄생했다.



림킴은 2011년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3’에 혼성듀오 ‘투개월’로 참가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투개월과 김예림 이름으로 꾸준

히 앨범을 발매하며 ‘레인’(Rain), ‘올 라잇(All Right), ‘컬러링’ 등을 대표곡으로 남겼다.

그러나 2015년 싱글 ‘스테이 에버’(Stay Ever)를 끝으로 긴 공백기에 들어갔다. 지난 5월 활동명을 김예림에서 림킴으로 바꾸고 싱글 ‘살기’(SAL-KI)를 발표하며 활동 재개를 알렸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0 930 MBC 뉴스 55 중계방송 국정감사 대검찰청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대검찰청 국정감사	40 지구촌 뉴스		00 중계방송 2019 국정감사 -대검찰청
[11]		00 동백꽃 필 무렵(재)		
[12]	00 KBS 뉴스 12	10 태양의 계절(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50 2019 KPGA KB금융 스타챔피언십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제39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25 푸르기식사교실 50 중계방송 국정감사 대검찰청	
[2]	00 중계방송 대검찰청 국정감사			00 뉴스브리핑
[3]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황금정원(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2019 KBS광주주요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V-갤럭시세븐 4호의 비밀 15 핑크퐁 원더스타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한글날 특집 겨레말모이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생활의 달인 스페셜 20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 (SK:키움)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어쩌다 발견한 하루	
[9]	00 KBS 뉴스9			
[10]	00 다큐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동백꽃 필 무렵	05 한국방송대상 수상 핑크피쉬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1]	35 UHD 스포츠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문화콘서트 난장	55 접속! 무비월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스포츠 다이어리 30 황금정원(재)	

EBS1

07:00 코요몽3	12:10 말을 걸어볼까? 동남아 살아보기	17:45 고고다이스 공룡탐험대(재)
07:15 미스터리아	13:00 다큐 시선	18:00 생방송 특!특! 특!특!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5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캣
08:00 당동영 유치원	14:45 다큐동화 달팽이(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4:55 미스터리아	20:00 4남매 쇼
08:45 꾸미의 소리그림책	15:10 코요몽3(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고고다이스 공룡탐험대	15:25 트리푸름	<중국 도읍지 전(傳) -장비와 떠나는 축만 기행>
09:30 다큐동화 달팽이	15:5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21:30 한국기행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6:10 예술아 놀자	<추종진미, 독배기 4부 가을 바다, 한 독배기>
10:00 지식의 기쁨	16:25 올리 앤 문재)	21:50 다큐 시선
10:30 한국기행(재)	16:45 당동영 유치원(재)	22:45 말을 걸어볼까? 동남아 살아보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5 발견의 기쁨 동네책방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워터지 뮤직박스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7일 (음 9월 19일 丁亥)

<p>36년생 진정할 가치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겠다. 48년생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낫다. 60년생 충진하는 기세로 크게 번창 하리라. 72년생 향후의 상황 전개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84년생 서로 통하여 말하지 않아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96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대미문의 형태로 나타나리라. 행운의 숫자 : 95, 37</p>	<p>30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미련 없이 거두어 들여라. 42년생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만이 국면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54년생 희망적이나, 66년생 사태는 불시에 발생하는 법이니 긴장을 늦추지 말자. 78년생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주는 것이 순조롭다. 90년생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26</p>
<p>37년생 그동안 품어 왔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49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61년생 실제적인 관계여야만 의미가 있다. 73년생 잊고 있었던 것을 연상시켜주는 이가 보인다. 85년생 나설 때가 되었으니 기민하게 행하라. 97년생 필연적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1, 67</p>	<p>31년생 용기 있는 이만이 행운을 잡는 법이다. 43년생 많고 적고 간에 지금은 다 모아야 할 때다. 55년생 진중해야만 견뎌 낼 수 있느니라. 67년생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영광이 따르리라. 79년생 선택 여하가 판국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91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70, 86</p>
<p>38년생 상대의 저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하다고 볼 수 있다. 50년생 이해관계를 떠나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 62년생 술은 끝 때 갈라야 하느니라. 74년생 쉽게 관철 될 수 있는 순조로움이 보인다. 86년생 강이 바다에 이르는 듯한 대관원의 합류점이 보인다. 98년생 상황 운리에 어긋난다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9, 82</p>	<p>32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44년생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다. 56년생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니 매우 길하다. 68년생 희망의 노래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다. 80년생 보고도 못 본 채로 들어도 못 듣는 체 해야 한다. 92년생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 보면 추진력이 떨어지느니라. 행운의 숫자 : 93, 08</p>
<p>39년생 상대의 은덕으로 인해 감동 받겠다. 51년생 즐기면서 임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63년생 방심한다면 빈틈을 해집고 들어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75년생 차후의 문제는 처치하고 당면 과제부터 해결하라. 87년생 핵심을 찾아야만 결론에 도달한다. 99년생 묵묵히 정도를 걸으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56, 17</p>	<p>33년생 쥐구멍에도 별을 낳아 있느니라. 45년생 점진적인 활동이 안정 궤도로 이끌 것이다. 57년생 자리 잡게 될 것이다. 69년생 조용한 가운데서 무리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81년생 상대의 입장과 체면을 고려해 주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볼 수 있다. 93년생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8, 24</p>
<p>40년생 마련한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으니 구체적인 필요가 있느니라. 52년생 의외로 들어온 것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64년생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76년생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88년생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미련 없이 행동하라. 00년생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8, 06</p>	<p>34년생 계획 못지않게 진정한 실행이 계속 되어야만 한다. 46년생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58년생 눈앞의 것만 잡자 하다 보면 편협해지기 쉽다는 것을 알라. 70년생 미진한 점이 있다면 대중 넘겨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밝혀야 하느니라. 82년생 우연히 생긴 것이 적절히 쓰이게 되리라. 94년생 필수 사항은 절대대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76, 02</p>
<p>41년생 다시 없이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53년생 굳은 신념으로 추진해야 수확을 예상할 수 있다. 65년생 표면적인 상황이라도 그다지 별 의미는 없다. 77년생 마음만으로는 아니 되니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자. 89년생 번거롭더라도 상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01년생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활로가 보이리라. 행운의 숫자 : 41, 85</p>	<p>35년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순탄함을 낳을 것이다. 47년생 작정하고 댄바겨겨우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는 판국이다. 59년생 남 좋을 일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라. 71년생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83년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때다. 95년생 절제 했을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9, 92</p>